

설명자료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배포일시 | 2021. 1. 27.(수) 13:00 (총 6매) | 보도시점 | 즉 시 |
| 담당부서 | 전주 기상지청 관측예보과 | 담당자 | 과장 김희철 전문관 양석종 |
| | | 전화번호 | 063-249-3240 |

28~29일, 태풍급 강풍과 함께 급변하는 날씨 - 전라북도 매우 많은 눈 -

- 28~29일 최대순간풍속 시속 90km 이상, 해상 최고 6m 높은 물결
- 시설물 파손 및 낙하물 유의, 해상 선박 사전 대피
- 28일 오후~29일 오전 전북 내륙 중심 매우 많은 눈, 빙판길 조심
- 전북동부내륙 최대 15cm 이상 적설
- 28일 오후~30일 오전 강추위, 강풍으로 체감온도 더 낮아
- 전북동부내륙 아침 최저기온 -10℃ 이하



[1월 28일(목) 오후 예상기압계 모식도]

- 전주기상지청(지청장 김병춘)은 **28일(목) 오후~29일(금)에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**며 선별진료소 등 야외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. 또한, **강한 추위와 함께 전라북도에는 매우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**며,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강조했다.

[기압계 전망]

- 전주기상지청은 **28~29일에 강풍과 강수를 동반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하고, 그 뒤를 따라 서쪽의 고기압이 빠르게 접근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와 날씨가 급변할 것으로 전망했다.**
 - **28일 낮 동안 강수 구름대를 동반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하면서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.**
 - 특히, **28일 낮부터 서쪽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고기압에 의해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차가 커지면서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겠고,**
 - 이 영향으로 전라북도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.
 - 또한, 찬 바람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전라북도는 **29일 오전까지도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.**

[강풍과 풍랑 전망]

- 28일 아침에 서해안을 시작으로, 낮부터는 매우 강한 바람(시속 25~65km, 초속 7~18m)이 불면서 대부분 지역에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며, 29일까지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

 - 특히, 해안, 섬 지역, 산지에서는 순간적으로 시속 90km (초속 25m) 이상,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속 70km(초속 20m) 이상의 돌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하였다.

- 서해남부해상은 28일 새벽부터 강한 바람으로 인해 물결이 2~6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.

 - 모든 해상에서 낮은 구름대에 의해 가시거리도 좋지 않은 가운데,
 - 서해남부해상은 29일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하였다.
 - 특히, 조업하는 선박들은 최고 6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로 인한 해상사고의 우려가 있고, 정박 중인 소형 선박도 선박 간의 충돌로 파손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.

- 전주기상지청 예보관은 “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, 건설현장,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파손과 강풍에 날리는 파손·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, 항공기와 해상 선박의 운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”고 당부했다.

[강수 전망]

- 28일 낮 동안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대가 빠르게 통과하면서 전라북도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28일 오전에 서쪽지역부터 비 또는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확대되면서 찬 공기가 유입되기 시작하는 낮에는 내리던 강수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강도가 한 차례 강해질 것으로 분석하였다.
- 이후 찬 공기가 눈구름대를 남동쪽으로 빠르게 밀어내겠지만, 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전라북도는 29일 오전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 시작부터 강수형태가 눈으로 내리고, 해상 눈구름대의 영향이 계속 이어지는 전북동부내륙은 29일 오전까지 최대 15cm 이상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겠고,
 - 그 밖의 지역에서도 29일 오전까지 3~10cm의 눈이 쌓이면서 많은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였다.
 - 또한, 28일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 눈 또는 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·번개가 발생하는 곳(육상·해상 모두 포함)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.

| < 예상 적설(28~29일) >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라북도 | 3~10cm(전북동부내륙 많은 곳 15cm 이상) |

- 특히, 전주기상지청은 28일 오후부터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에 의해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**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하였다.**

- 또한, 이번 강수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강수형태(눈과 비의 경계)를 결정짓는 지상의 기온이라며, ① 1~2℃의 미세한 차이에도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시점이나 적설이 달라질 수 있고, ② 같은 지역 내에서도 고도와 지형에 따라 적설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.

- 이에 전주기상지청은 지상 및 대기 하부(700~800m 상공)의 기온 변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, 서쪽으로부터 구름대가 다가오는 **28일 새벽부터는** 정확한 강수의 형태와 시작 시점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상정보를 발표하겠다고며, **최신의 기상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.**

[추위 전망]

-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는 28일 오후부터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해 30일 오전까지 매우 추울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29~30일은 전북동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-10℃ 이하로 내려가는 등 28일에 비해 5~10℃가량 크게 떨어져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.
- 전주기상지청 예보관은 “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5~10℃ 가량 높게 유지되면서 비교적 온화했던 상태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5℃ 가량 낮은 상태로 급격히 낮아지는 만큼 체감하는 추위가 더욱 강하겠다”며
- 건강관리에 유의해야하는 것은 물론,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10℃ 가량 더 낮아지는 만큼 야외 업무 종사자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권고하였다.